

주님과 얼마나 접촉하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5:27-29

사람은 접촉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유익을 주는 접촉이 있고, 해를 끼치는 접촉도 있습니다. 유익한 접촉은 넓고 잦을수록 좋고, 해로운 접촉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태어나면서 제일 먼저 부모님과 접촉합니다. 부모님의 품과 손길 아래 성장합니다. 미국의 Bill Jones 박사는 가출 소녀의 90%가 접촉 결핍증에 걸려 있다고 하였습니다. 어려서 충분한 피부접촉을 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는 커서 성을 매개로 하는 관계 중독에 빠지기 쉽다고 합니다. 어려서의 모유 수유, 그리고 충분히 품에 안아주고, 만져주고, 웃어주고, 예뻐해 주는 것이 건강한 성인으로서 성장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부모는 어린 아기에게 해로운 것은 '지지, 지지' 하면서 멀리하도록 가르칩니다. 접촉을 피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유익한 접촉은 많은 것이 좋고, 해로운 접촉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은 그동안 무엇을 접촉하며 살았을까요? 다 가졌을 때는 돈을 만지며 사랑하며 살았을 수 있습니다. 여러 친구들도 만나고, 좋다는 곳, 좋다는 음식 찾아다니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병이 들면서 용하다는 의사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결국 가진 것 다 잃고 병만 더 깊어졌습니다. 이젠 다 잃었다 싶었을 때, 그때 여인은 예수님을 접촉합니다. 그 접촉이 여인을 살렸습니다.

[마가복음 5:27-29]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²⁸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려라 ²⁹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르매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주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었는데 병이 나았습니다. 혈루 근원이 곧 말라버린 것입니다. 이후 여인은 예수님을 붙좃는 자가 됩니다. 주님과 접촉을 이어갑니다. 접촉면을 넓혀가고, 빈도를 높여갑니다. 주님과 접촉이 이렇게 좋은 것을! 만일 그 접촉을 늘려간다면 얼마나 더 좋을까요?

1. 대어주시는 은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지만, 실상은 예수님이 대어주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인을 위해 그 길로 가셨고, 여인의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어주시는 접촉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의 아픔을 해결해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마태복음 8:1-3]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²한 나병환자가 나아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³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마가복음 7:32]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아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사도행전 5:15,16]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¹⁶예루살렘 부군의 수

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사도행전 19:12]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마태복음 19:13] 그 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누가복음 7:14]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멘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2. 잡아주시는 은혜

예수님은 대어주시는 안수 정도가 아니라 잡아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붙들어주시는 은혜입니다.

[마태복음 9:25]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시매 일어나는지라

[마태복음 14:31]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이사야 41:10]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시편 18:16]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심이여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요한복음 10:27-29]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²⁸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²⁹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헤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3. 덮어주시는 은혜

대어주시는 은혜도 좋고, 잡아주시는 은혜도 좋지만, 그러나 이 은혜만 못합니다. 덮어주시는 은

혜입니다. 당신의 두 팔로 안아주십니다. 당신의 날개 품에 품어주십니다. 당신이 옷자락으로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보호해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과 부끄러움을 덮어주시고 사해주시는 은혜입니다.

[시편 91:4-7]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⁵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 드는 화살과 ⁶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⁷천 명이 네 왼쪽에서, 만 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룻기 3:9]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무를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이사야 43:2]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시편 32:1]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요한복음 8:11]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3:34]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베드로전서 4:8]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사야 6:1] 옷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요한계시록 21:2-5]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³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⁵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러한 주님과와의 거룩한 접촉을 가지는 사람에게는 따르는 사명이 있습니다. 요구되는 삶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거룩한 접촉을 통해서 세상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요? 허다한 죄를 덮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합니다. 마르지 않는 샘이 속에서 솟아 흐릅니다. 소그룹으로 모여 시대를 이루고, 교회로 모여 강물을 이루어 흘러갑니다. 그래서 접촉하는 모든 것을 살립니다. 광야를 에덴 되게 합니다.

[출애굽기 30:29]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스가랴 13:1] 그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스가랴 14:8] 그 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요한복음 4:13,14]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¹⁴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에스겔 47:9]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사야 58:11]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 댄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 2025 기원 : 물 댄 동산 같은 교회

- ① 메마른 심령이 살아나는 예배
- ② 성도의 교제로 따뜻한 소그룹
- ③ 내가 살고 세상을 살리는 생활